

기독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다



서기성 (한국교육자선교회위원장 초등학교교사)

24년간 강원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2013년 초등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고, 2014 대한민국창의인성한마당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현재 (사)한국교육자선교회 강원지방회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2015년 제 1회 기독교동아리 연합캠프를 시작으로 현재 6회째 캠프를 운영하는데 함께 하고 있다. (사)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학교 내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사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작년 겨울, '현정이 이야기,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구나.' 라는 기사가 국민일보에 실렸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강원지방회 소속 선생님이 예수님께 배운 사랑으로 교실에서 아이를 품게 되고, 아이가 변화되는 이야기, 감사하는 이야기가 담긴 기사이다. 처음 선생님께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사랑에 눈물을 흘렸다. 이 글을 쓰느라 기사를 다시 검색해서 읽어 봤는데 역시 감동적이다.

이 이야기로 만든 영상을 문체부 공직자종교차별 자문위원회 위원장님께 보여드렸었다. 그 때가 강원도 내 교사들이 학교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도교육청의 감사를 받아 세 분의 선생님이 감봉과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았던 때였다. 과연 세 분

의 선생님이 하신 일이 그 정도의 중한 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인지 묻기 위해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하는 자리였다.

강원도교육청이 종교중립의무 위반으로 본 사유에는 '방과 후 아이와 신앙 상담을 했다. 전학 가는 아이와 학부모에게 성경을 선물했다. 일과 전에 개인적으로 교사가 기도를 했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다.

종교의 순기능을 고려하지 않는 학교

나는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상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종교 차별을 이유로 종교 자체가 금지되는 학교의 현실을 호소하고 싶었다. 영상을 본 후 위원장은 교



사는 방과 후 라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 안에서 종교가 할 수 있는 순기능은 고려되지 않고 '공직자가 종교차별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만 초점을 맞추니 그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쩌면 종교의 영역을 너무 교조적(敎條的)으로 접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원회의 구성을 보니 각 종교의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종교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종교학자도 신실한 신앙인일 수 있겠지만 신앙의 영역을 학문으로 접근하니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아이들이 변한다는 이야기가 추상적으로 들렸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학교 현장에서 기독 교사들은 신우회 모임을 통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동동아리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 하는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이런 모임들을 통해 아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되고, 예수님이 자신처럼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려고 하신다는 복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 다른 어떤 상담 프로그램이나 치료법도 전능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복음보다 강력



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창조주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 그의 삶 전체를 바꿀 만한 사건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아이들은 삶이 변한다. 현정이와 같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아이들이 많지만 이 놀라운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 모습에 낙심한 아이들도 너무 많다. 이 소식을 전하는 분이 학교의 기독교 사인데 요즘은 학교에서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 2017년 말 강원도 교육청 감사실은 2018년도 자체감사기준을 만들면서 '종교차별교육'에 대해 파면까지 가능한 중징계 조항을 만들겠다고 의견 조사를 했다. 기독 교사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없던 일이 되었지만, 강원도 교육청이 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어떤 것인지 단면을 보게 된 사건이었다.

종교차별 예방교육 매뉴얼 - 종교 활동으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보장

헌법 제 20조 1항은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 전파와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종교의 자유를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중



교의 자유를 법률도, 명령도, 조례도 아닌 공직자 종교차별자문위원회의 결정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공직자 종교차별예방교육 매뉴얼이 억압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종교차별예방교육 매뉴얼은 오히려 종교차별이라는 이유로 종교가 차별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가능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 개인용 책상에 경전을 둘 수 있고, 종교적 표현물을 둘 수 있으며, 식당, 복도에서 종교적 토론이 가능하며, 휴식 시간에 경전을 읽는 것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취미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전도 행위도 가능하며, 전도 책자를 나눠주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신우회 조직도 가능하고, 관공서에서 종교 의식도 가능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학예회 때 산타 복장이나 크리스마스 카드 제작도 가능하며, 심지어는 종교적 중립성이 무종교를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에도 법에 의해 통치되어지지 않고 민원에 대한 염려와 종교중립에 대한 과도한 예민함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 내 기독교 동아리 활동일 것이다.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하라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이런 교육이 학교에서 종교는 다루면 안 되는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게 했다. 이제 학교에서는 종교적인 어떤 표현도 교사가 종교의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불안한 요소로 취급받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교에서 기독교동아리를 개설하고자 하는 기독교 교사들이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로 동아리를 개설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상당수 접수되고 있다. 보통 3, 4월에 학교에서는 자율동아리를 구성하는데, 기독교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

면 종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이 상당히 많다. 또는 민원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기에 허락할 수 없다고도 말한다.

사법부의 판단과 동떨어진 학교 현장의 현실

이런 갈등 때문에 (사)한국교육자선교회에서는 다양한 각도로 학교 내 기독교 동아리가 가능한지의 법적 근거들을 찾아보았고 확인한 결과 너무 많은 근거 자료들이 있었다.

교육부와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질의를 했을 때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고, 강원도교육청에 문의했을 때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교육부가 인정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가능한 청소년 종교 단체들이 있다. 정규 교육과정인 창의적 체험활동에도 이런 청소년 단체의 활동을 동아리 활동으로 인정해 준다. 2016년 정보공시 매뉴얼에는 종교 동아리에 성직자가 방문하는 경우 강사 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답변도 제시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도 동일하다. 춘천에서 있었던 기독교 동아리 개설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교내 교외에서 사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거나, 종교 모임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것은 학교 안에서 자유로운 종교 활동이 가능하지만 동아리 개설에 관한 문제는 학교장의 재량권에 속하는 부분이므로 학교장이 종교자율동아리를 개설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결정이다. 사실 나는 이 문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대부분의 학교 구성원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사법부는 교내, 교외에서 사적으로 종교 활동 및 종교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당연

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법은 분명히 학교 내에서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준다.

올해의 일이다. 강원도의 한 학교는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는 선생님의 요청에 대해 전체 교사 협의회를 통해 결국은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었을 경우의 민원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기독교 동아리 개설을 요청했더니, 부장 회의가 소집되었고 대부분의 부장들은 학교에서 종교 동아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결국은 이곳도 개설이 안 되었다. 평양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민원을 우려하여 학교 안에서 종교 자체에 대한 표현을 하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다고 한다.

새로운 종교 탄압의 분위기가 헌법의 통치를 넘어 학교를 지배하고 있다. 기독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삶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런 현실에 대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보이지 않는 종교탄압은 여전히 우리가 전해 줄 예수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현정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게 하고 방치하게 할 것이다. 기독교사들은 학교에서 복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어 한다.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떡이 아니라 말씀이 기갈 한 이 시대에 아이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기독교사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